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윤 정 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 현대 공포영화 특수분장의 발전에
관한 연구

- 여고괴담 시리즈를 중심으로 -

2008

성신여자대학교 아트 · 디자인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 · 스타일리스트 전공

최 정 아

한국 현대 공포영화 특수분장의 발전에 관한 연구

- 여고괴담 시리즈를 중심으로 -

윤 정 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아트 · 디자인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 · 스타일리스트 전공

최 정 아

인 준 서

최정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아트 · 디자인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한국 공포 영화 속에서의 특수분장이 어떻게 발전되어오고 있으며 적용되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방대한 양의 공포 영화 속에서 우선 현대 공포영화로 집약하고 특수분장이 사용된 영화들 중에서도 90년대 후반에 처음 개봉되어 2004년까지 총 4편의 시리즈를 낸 <여고괴담>을 중심으로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자한다.

<여고괴담>은 당시 다른 장르영화에 비해 투자와 발전이 저조했던 우리나라 공포영화 장르에 부활을 가져다 준 작품이었고 최초의 시리즈 영화로서 그 의의가 크기 때문에 공포영화를 연구하고 특수분장의 발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는데 아주 적절한 작품이라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자가 <여고괴담 4-목소리>편에 직접 참여했던 작품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당시 영화적 배경과 각 각의 시리즈에서 어떠한 특수분장이 사용되었는지 장면별로 분석하고 사용되었던 재료들과 기법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발전과정들이 있었는지 분석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고괴담 시리즈와 비슷한 시기에 개봉된 다른 영화들 속에서 역시 같은 발전양상을 볼 수 있었으며 다양한 특수분장 재료의 발전이 곧 특수분장의 질을 높이는 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포영화 속에서의 특수분장이 장기간 동안 서서히 발전해온 외국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 재료의 의존도가 높고 예전과 비교해 비교적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낮은 제작비로 인한 열악한 제작환경 등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한국 특수분장의 짧은 역사만큼이나 관련자료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자본력을 중심으로 하여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움직이는 외국 특수분장사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완성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나라의 상황은 영화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국관객이 1000만명이 넘는 시대에 돌입한 우리나라 영화 속에서 특수분장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의 투자와 더불어 전문적인 서적과 특수분장 기술의 개발, 재료의 개발, 전문적인 교육기관 등의 설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3
II . <여고괴담 1>	
1. 영화개요	5
2. <여고괴담 1> 의 특수분장	9
III . <여고괴담 2>	
1. 영화개요	15
2. <여고괴담 2> 의 특수분장	18
IV . <여고괴담 3 -여우계단>	
1. 영화개요	21
2. <여고괴담 3-여우계단> 의 특수분장	23
V . <여고괴담 4- 목소리>	
1. 영화개요	38
2. <여고괴담 4-목소리> 의 특수분장	41
VI . 결론	53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 분장의 재료

1. 기본 재료
2. 특수분장 재료

그 립 목 차

그림 1. <여고괴담 1>여선생 시체	11
그림 2. <여고괴담 1>정숙의 시체	11
그림 3. 클로즈업된 여선생 시체	11
그림 4. 회초리를 맞은 손 분장	11
그림 5. 피분장 된 배우의 얼굴	12
그림 6. 극적인 상황의 분장	12
그림 7. 커튼에 몸이 감기는 장면	13
그림 8. 커튼에 얼굴이 감기는 장면	13
그림 9. 커튼에 감긴 채 찢리는 장면	13
그림 10. 교실벽에 피가 흐르는 장면	13
그림 11.12. <여고괴담 2>의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효신	19
그림 13. 캐비닛 속의 효신	19
그림 14. 국어선생의 자살장면	19
그림 15.16. 극중 민아	20
그림 17.18 <여고괴담 3>에서 해주로 분장된 실제 영화장면	24
그림 19. 핫폼이 사용된 구미호의 모습	25
그림 20. <은행나무침대>핫폼을 사용한 분장	25
그림 21. <텔미썸딩>냉동 유기시체모형	26
그림 22. <살인의 추억>전신시체 모형	26
그림 23. <알포인트>모형 작업과정	27
그림 24. <알포인트>얼굴모형	27
그림 25. <아파트>얼굴 모형 그림	27
그림 26. <아랑>의 애기 전신 모형	27

그림 27. 배우의 분장 전 모습	30
그림 28. appliance 붙이는 과정	30
그림 29. appliance 붙이는 과정	31
그림 30. 분장 후의 모습	31
그림 31. 혜주의 캐릭터로 변한 배우 조안의 모습	31
그림 32. 혜주의 몸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몰드와 핫폼	31
그림 33. 분장된 손의 모습	31
그림 34.35. 조소실의 시체모형	32
그림 36. 조소실의 시체모형	33
그림 37. 시체모형 촬영준비과정	33
그림 38. 영화 속 실제장면	33
그림 39 . 무용실에 나타난 소희의 영혼	33
그림 40.41 소희의 모형 제작과정	34
그림 42. 기계장치 된 소희의 모형	34
그림 43. <각설탕>에서 기계장치 된 말의 모습	35
그림 44. <친절한 금자씨>최민식 개모형	35
그림 45. 분장된 윤지의 실제 영화 속 장면	36
그림 46.47 윤지의 얼굴 흉터 분장과정	36
그림 48. 제작된 여우계단	37
그림 49. 50. 여우계단에 나타나는 귀신분장과정	37
그림 51. <여고괴담 4>영화 속 실제 장면	43
그림 52. <여고괴담 4>서형의 왁스컷 분장	43

그림 53. 영화 속 실제장면	43
그림 54. 3rd Degree로 분장하는 과정	43
그림 55. 채색된 모습	43
그림 56. 영화 속 실제 장면	44
그림 57. 목에 흉터 분장한 모습	44
그림 58. 영화 속 실제 장면	45
그림 59. 슈가글래스를 이용한 분장과정	45
그림 60. 영화 속 실제장면	46
그림 61. 분장과정	46
그림 62. 실제 영화 속 장면	47
그림 63. 인상작업과정	48
그림 64. 실리콘 보형물	48
그림 65. 실제 촬영을 위해 appliance를 붙인 모습	48
그림 66. 실제영화 속 장면	49
그림 67. 인상작업	50
그림 68. 석고몰드	50
그림 69. 조형작업과정	50
그림 70. 몰드작업과정	50
그림 71. 완성된 appliance	51
그림 72. 마무리과정	51
그림 73. appliance 붙인 배우의 목에 첼로줄을 감는 모습	51
그림 74. 눈물렌즈를 착용한 배우	52

I. 서론

1. 연구 목적

영화는 가장 친숙한 대중문화로서 우리는 영화를 통한 간접경험을 통해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하지만 요즘 영화가 그냥 보고 즐기는 단순한 영화의 기능에서 나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되면서 많은 투자와 관심이 쏠려있는 실정이다. 1998년 ‘쉬리’의 흥행이후 2003년 ‘태극기 휘날리며’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뒤를 이어 ‘실미도’, ‘왕의 남자’, ‘괴물’, ‘디워’ 등이 줄을 지어 흥행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에 밀리지 않는 기술력과 구성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폰’, ‘인형사’, ‘장화홍련’ 등의 영화들이 외국에 판권이 팔리면서 리메이크 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객들 역시 외국영화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웰메이드(well-made)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고 있다. 웰메이드(well-made) 영화라는 것은 편집이나 촬영, 연출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들이 잘 어우러질 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특수분장이다.

특수분장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분장을 말하며 배우들의 신체로는 촬영이 불가능할 때 사용되어지며 노인분장, 신체일부 또는 전체의 손상, 왜곡, 변형 등을 사실과 매우 흡사하게 대치 혹은 복사하는 분장법, 그리고 상상 속의 인물을 창조해 원격조정에 의한 근육의 움직임과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특수효과분장’등이 있다.¹⁾

특수분장의 역사는 1900년 초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1) 홍수경,이운배 저. 분장기술. 예림. 2007.02.20

경우에는 1990년대 초 해외 유학과의 본격적인 활동과 함께 특수분장의 영역이 메이크업 업계에 대두하게 되었다.²⁾ 물론 이전에도 1967년 ‘월하의 공동묘지’, 1986년 ‘여곡성’ 등에서 특수분장의 기법들을 볼 수 있었으나 특수분장 보다는 조명과 안개 등의 시각효과가 주를 이루는 정도였으며 이후 1994년에 제작된 ‘구미호’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특수분장은 영화산업의 발달 등과 함께 분장 기술이 발달되고 분장 재료가 다양화됨으로써 지금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분장의 발전과 변화들을 1990년대 이후의 영화중에서도 특수분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 장르인 공포영화 속에서 찾아보고자 했고 많은 양의 공포영화들 속에서도 <여고괴담>시리즈를 선택한 이유는 당시 ‘하위장르’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투자와 관심이 부족했던 한국 공포영화계에 부활³⁾을 가져다주면서 한국적 공포영화로서 평가 받고 있다는 점과 1998년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4편의 영화를 통해 분장의 진보와 기법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약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다.

더불어 당시 영화적 상황과 같이 특수분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특수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특수분장 관련 자료로서 그 역할을 기대한다.

2) 이상훈 저. 메이크업 예술기법. 들샘. 2007

3) 김민경, “충무로에 귀신출몰“, 공포영화로의 초대- ‘퇴마록’ ‘여고괴담’등 제작러쉬”. 씨네 21.

1998.03.12 (조용한 가족, 퇴마록, 여고괴담, 자귀모가 제작중, 스크립, 스폰, 고질라 대기중, 올해 처럼 충무로에서 공포영화 장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영화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 영화평론가 양윤모)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과 범위는 1998년 첫 편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제작되어 온 <여고괴담>시리즈를 중심으로 특수분장의 발전을 조사했으며 각 영화별로 특수분장이 사용된 장면을 중심으로 사용된 재료와 기술들을 분석한다.

각 한편씩 영화를 소개하고 영화 속에서 말하는 공포의 유형을 분석, 영화적 의의를 먼저 연구한 다음 이러한 영화적인 상황들에서 특수분장의 형태를 신체일부 또는 전체의 손상, 왜곡, 변형, 더미 등으로 분류하여 어떻게 이용되어있고 어떠한 효과들을 이루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영화 속에서 특수분장이 어느 부분에 사용되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장면사진을 캡처했고 제작과정 등의 사진은 실제 특수분장을 담당한 팀장들의 소장 자료를 이용하였다. <여고괴담 1>, <여고괴담 2>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오래된 작품이기에 개인소장자료의 획득이 어려웠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한 분석으로 대신하였다.

연구방법의 특성상 관련서적 보다는 당시 영화평론과 기사들, 영화관계자들의 의견을 통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직접 제작에 참여했던 특수분장사들의 인터뷰를 통한 실질적인 연구를 토대로 한다.

특히 제 IV장에서는 가장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여고괴담 3 -여우계단>의 특수분장 재료나 기법들을 심층연구하면서 우리나라 특수분장 재료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특수분장재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뒷장에서는 부록을 첨가하여 재료의 사용범위와 그 특징들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공포영화 속에서

특수분장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학문적인 가치로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여고괴담 1>

1. 영화개요

감독: 박기형

국내 개봉일: 1998. 05.30

주인공: 이미연(허은영 역), 박용수(오광구 역), 김규리(임지오 역), 최강희
(윤재이 역), 윤지혜(김정숙 역), 박진희(박소영 역)

흥행성적: 621,032 (서울관객)

특수분장사: 박선지

줄거리

<여고괴담 1>은 9년 전 무당의 딸이라는 이유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자살했던 진주라는 학생의 원혼이 학교를 떠돌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진주의 동문이자 절친했던 친구 은영이 교사가 되어 다시 모교로 부임하게 되고, 진주의 원혼이 학교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어느 여선생은 이러한 사실을 은영에게 말하려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다음날 등굣길에 지오와 재이가 담임이었던 여선생의 시체를 제일 먼저 목격하게 되고 학교는 술렁이게 된다. 그러던 중 전교1등인 소영에게 1등을 매번 뺏겨왔던 정숙이 이를 비판해 자살을 하게 되고 연이는 죽음으로 인해 학교는 공포에 휩싸인다.

은영은 이 모든 사건들이 9년 전 죽은 친구 진주와 관련됨을 의심하던 중 예전 진주가 가지고 다니던 방울종을 지오가 가지고 다니는 걸 보게 된다.

지오는 죽은 여선생의 그림을 그려 담임 오광구에게 혼이 나게 되고 그날 지오를 혼냈던 담임이 처참하게 살해된다. 이러한 일들의 반복이 진주의 영혼 때문이었던 걸 알게 은영은 재이의 몸을 빌었던 진주의 영혼과 대면하게 되고 은영은 진주가 진정 원했던 것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녀를 위로하고 인정해 줌으로서 영혼은 학교를 떠나게 된다.

90년 후반 <여고괴담 1>은 당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로서 지금까지 총 4편을 만들어내는 한국영화계의 유일한 시리즈 영화로서의 원동력이 되었던 작품이다.

소위 잘 나가는 스타를 앞세운 영화도 아니었고 6억이라는 저예산으로 만들어졌던 이 영화가 의외의 흥행성공을 이루었기에 이러한 관심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여고괴담 1>은 여고라는 배경을 소재로 한 괴담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오기민이라는 프로듀서가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던 작품이었다. 당시 그는 시나리오를 들고 다니면서 몇몇 영화사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제작규모가 커지고 있던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톱스타도 없고 공포영화라 하면 ‘전설의 고향’을 생각하는 일반적인 견해들 때문에 번번이 외면을 당하기 일수였다. 이러던 중에 오기민 프로듀서가 씨네 2000의 이춘연 사장을 만나게 되면서 여고괴담이 탄생될 수 있었는데 당시 이춘연 사장은 이미 일본에서 유행하던 괴담영화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이라 그 가능성을 보았고 일본의 괴담영화와는 다른 한국적인 괴담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¹⁾.

1) <여고괴담 3-여우계단> DVD. 제작자 씨네2000 이춘연사장 인터뷰중에서

이러한 이춘연 사장의 결정에 강우석감독이 투자를 자청하여 일이 진행되었고 단편영화 <과대망상>의 박기형 감독을 눈여겨보던 오기민 프로듀서가 그에게 제의해 지금의 <여고괴담 1>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었다.

<여고괴담 1>은 시기적으로 일본의 괴담영화와 맞물려 있기는 하나 기획 때부터 일본괴담영화와는 차이점을 두고 시작했다. 박기형 감독 또한 영화에 참여하기 전에 일본에 직접 가서 일본괴담영화들을 보고 <여고괴담 1>의 시나리오와 비교해 차별성을 확인한 다음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학교괴담이라는 동일 소재의 측면에서 “학교괴담의 근원은 일본”²⁾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고괴담 1>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학교괴담형 영화와 닮아있다고 할 수는 없다.”³⁾ 일본식 괴담영화들은 일종의 초등학생들의 ‘모험물’에 가깝고 극단적인 귀신들은 ‘악’을 상징하거나 그 목적이 불분명한 존재로 나타나는 데 비해 <여고괴담 1>은 가장 비현실적인 소재로 제도교육의 실상과 현실적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작진 역시 처음부터 마니아들이 생각하는 흔한 공포영화를 만들 생각이 없었다. 외국의 잔인한 공포영화처럼 귀신에 대한 반감 보다는 오히려 동정하며 슬픔을 느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다.⁴⁾ 이렇듯 보통의 공포영화와는 발상 자체부터 달랐기에 한국적 공포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편을 시작으로 한국적인 괴담영화로 자리매김한 여고괴담부터 이와 비슷한 유형의 ‘여고괴담형 영화’⁵⁾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은 무엇인지에

2) 조선일보. 2002.11.9: 90년대 후반 여고괴담을 시작으로 여고괴담형 영화들이 많이 개봉되었는데 이 괴담들의 기원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 교사들에 의해 전파된 것이다. 이러한 괴담들이 전통적인 요소들과 결합하여 한국적 괴담으로 발전한 것이다.

3) 김의찬. 씨네21. 1998..30

4) 씨네 21. 1998.06.30

5) 이은의, ‘공포인자의 특징에 따른 한국 공포영화의 분류 및 흥행과의 연관성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여고괴담형 영화: 원귀가 등장하며, 그 원귀가 인물들의 ‘현재’에 ‘실존’함으

대해 살펴보면 이를 선행 연구했던 자료들에서 그 근거를 토착민담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토착민담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최초의 괴기영화로 일컬어지는 1924년의 <장화홍련전>(박승필 제작, 박정현 감독)부터 1967년<월하의 공동묘지>, 1970년 <이조괴담>등이 설화나 민담 등을 소재로 했던 영화들이다. 이러한 괴기영화들은 한동안 주춤했다가 80년대의 중반이후에 급격히 배급되었던 미국공포영화의 영향을 받아 다시 부활하게 된다. 하지만 공포영화의 장르적 유행을 타고 있을 뿐 여전히 토착민담에 근거한 원귀를 다루는 한국적인 괴담영화형식으로 새롭게 나타나게 된다. <여고괴담>이 토착민담의 여러 형태의 원귀 중에서도 여귀에 기반을 둔 배경을 1977년부터 1999년까지 방영되었던 TV 드라마 ‘전설의 고향’의 영향이라고 하기도 한다.⁶⁾ 오랫동안 전설의 고향식 여귀들을 보아왔던 우리들에게 여고괴담의 귀신들은 친숙하면서 충분히 한국적인 그 어떤 것이다.

하지만 <여고괴담>은 이러한 과거의 괴기영화처럼 토착 민담을 소재로만 하지 않고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적 괴담영화로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극찬들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당시 충무로에 멸종상태였던 공포영화의 장르적 잠재력을 살렸다는 것, 적절한 음향효과와 사용과 적절한 편집 등으로 극적인 공포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깔끔한 만듦새 등을 이유로 흥행의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⁷⁾

로써 공포의 대상이 되고 사건을 만들어가는 영화들을 말하며 대표적 작품으로 여고괴담, 링, 자귀모, 가위, 공포택시, 폰, 쓰리, 하얀방, 페이스, 분신사바, 얼굴없는 미녀, 알포인트, 귀신이 산다, 시릴리 2km, 분홍신 등이 있다.)

6) 백문임. ‘한국 공포영화 연구-여귀(女鬼)의 서사기반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2.8

7) 허문영기자. 씨네21. 1998.6.30

이러한 평론가들의 극찬과는 반대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여고괴담이 ‘표현의 자유’를 맘껏 누린 상업영화라는 전제를 넘어서 교육의 현실과 교육자의 입장을 너무나 깨끗이 무시해버린 ‘무책임한 영화’⁸⁾라고 비판하면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고려했었기도 했다.

하지만 영화를 본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반응은 영화가 현실에 비해 과장된 건 사실이지만 성적순이 행복 순이 되고 성적 접촉을 일삼는 일부 선생님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이러한 교사들이 응징 될 때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반응이다. 학교라는 공통된 공간에서의 동질감과 상업적인 코드인 공포영화로서의 분위기가 일반 관객들을 사로잡은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팽팽한 의견들과 긴장감들이 <여고괴담 1>을 흥행가도로 달리게 하는 시너지 효과로 작용 했을 것이다.

2. <여고괴담 1> 의 특수분장

<여고괴담 1>의 특수분장은 신체의 손상장면과 피백(Blood bag)등의 활용으로 영화적인 공포장면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 작품이다.

한국공포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준 <여고괴담 1>는 흔히 말하는 공포영화와는 다르게 사회구조적모순과 교육제도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지만 음향, 기술적 부분에서는 공포영화의 기본공식을 적절하게 사용했던 영화이기도 하다. 교실복도에서 9년 전 죽은 진주가 교사가 되어 돌아온 친구 은영을 쫓아갈 때의 정면 점프컷, 목매단 교사의 시체를 목격 한 지오가 뒤따라온 친구를 돌려 세워 눈을 가리는 장면, 학교 안에서 항상 휘날리는 커튼으로 사람을 말아서 죽이는 장면 등은 <여고괴담 1>에서 공포스럽고 기억

8) 고연옥. 영화 ‘여고괴담을 둘러싼 환호와 우려’.1998.07 통권 165호 목요학술사 발행 p.106-110

에 남는 명장면으로 꼽히기도 한다.⁹⁾

<여고괴담 1>에서 분장과 특수분장을 맡은 박선지씨는 “공포영화에서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분장의 연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분장의 연출에서 보면 감독이 캐치하지 못하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화면 구성을 위해 각 신의 인물들을 연출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 또한 배우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조율해 주는 것과 시간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분장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고괴담 1>은 여고생들의 얘기이니 만큼 전체적인 분장의 분위기를 보통의 학생들처럼 사실적으로 연출하려고 했지만 화려한 모습에 익숙한 여배우들과의 의견조율 때문에 표현을 다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한다. 이렇듯 분장이나 특수분장이 배우들과의 작업이니 만큼 그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장사들은 많으며 이러한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고괴담 1>의 박기형 감독이 원하는 특수분장은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두려움이 묻어나게 표현해 내는 거였다. 이러한 주문을 받은 박선지씨는 그러한 감독의 요구에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했다.

<여고괴담 1>의 특수 분장을 살펴보면 (그림 1)은 죽은 진주의 존재를 제일 먼저 알게 된 여선생이 목매달려 죽은 시체를 다음날 학생이 발견하는 장면이고 (그림 2)는 매번 2등만 하는 정숙이 비관자살을 한 장면이다. 이 두 장면에서는 실제로 목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배우의 몸에 와이어를 착용하여 지탱할 수 있도록 하게 한 다음 실제 배우의 목에는 느슨한 밧줄을 연결해 연출해 낸 장면이다. 밧줄로 와이어를 감추어 각도를

9) 박해명.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가 뽑은 시리즈 명장면'. 씨네21 NO.41

맞춰 촬영한 것인데 와이어에 매달린 배우가 움직이는 바람에 촬영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장면에는 배우의 고충이 크므로 분장팀에서 배우의 컨디션을 잘 파악해야 하고 항상 곁에서 체크를 해야 한다. 조금 더 클로즈업된 (그림 3)은 죽은 지 하룻밤이 지난 시체의 표현을 위해 푸른 회색빛을 띤 피부톤으로 표현했고 피 얼룩, 흙가루, 라이닝칼라¹⁰⁾ 등을 사용하여 리얼리티를 살린 장면이다.



그림 1. <여고괴담 1> 여선생 시체



그림 2. <여고괴담 1> 정숙의 시체



그림 3. 클로즈업된 여선생 시체



그림 4. 회초리를 맞은 손분장

(그림 4)는 진주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회초리로 맞는 장면이다. 이 손등의 상처를 만들기 위해 라이닝칼라와 스프릿검(Sprit gum)¹¹⁾을 이용했다.

10) 분장용 유성컬러

11) 송진을 재료로 만들어진 분장용 접착제

스프릿껌(Sprit gum)의 점성을 이용해 약간 돌출되어 보이는 효과를 내었고 배우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해 약간의 과장된 컬러 표현을 했다.

이렇듯 극적인 상황이나 분위기에 맞게 연출하는 것은 영화분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림 5)와 같은 피의 연출에서는 어두운 밤신에 맞게 피가 잘 표현 될 수 있도록 보통 제조하는 방식 보다 약간 밝게 색을 제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렇게 공포 영화 속에서는 촬영장 주위의 환경과 조명의 상태 등에 의해서 분장의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 상황들이 많다.

(그림 6)에서는 배우의 얼굴이 극적인 상황에 맞게 분장이 효과를 더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위해서 물, 글리세린¹²⁾, 흙과 약간의 테닝 오일과 라이닝 칼라, 피가루를 사용했고 점차적으로 연결에 맞게 분장의 강도를 더해가며 찍은 장면이다.



그림 5. 피분장된 배우의 얼굴



그림 6. 극적인 상황의 분장

12) 투명한 점액성의 액체로 눈물이나 땀의 표현에 쓰이는 재료

최고의 공포장면으로도 꼽힌 (그림 7), (그림 8), (그림 9)는 피백(Blood bag)이 활용된 장면이다. 칼이 지나가면서 피가 베어 나와야 할 부분에 피백을 만들어 보이지 않게 붙인 다음 촬영을 하는 것이다. 촬영을 할 때는 컷 별로 나누어 찍기 때문에 충분히 점차적인 효과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 장면에서 일부컷은 배우가 직접 커튼을 감고 찍다가 (그림 8)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작된 얼굴모형을 활용해 촬영한 것이다.

(그림 10)은 특수효과팀과 협력하여 촬영되어진 것인데 분장팀은 피를 만들어 제공하고 특수효과팀에서 교실전체에 관을 설치해서 압력으로 피를 뿜어내어 촬영한 것이다. 이렇게 분장팀은 특수효과팀과의 협력을 통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7. 커튼에 몸이 감기는 장면



그림 8. 커튼에 얼굴이 감기는 장면



그림 9. 커튼에 감긴 채 찢리는 장면



그림10. 교실벽에 피가 흐르는 장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고괴담 1>에서의 특수분장은 피의 연출과 피백 등이 활용된 장면이 많았고 공포감을 주어야 하는 적절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특수분장이 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공포영화의 장르적 특성에 따라 촬영당시 환경의 변화에 시기적절하게 움직여 상황에 맞는 분장의 연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Ⅲ . <여고괴담 2>

1. 영화개요

감독: 김태용, 민규동

국내 개봉일: 1999.12.24

주인공: 김민선(민아 역), 박예진(효신 역), 이영진(시은 역), 공효진(지원 역), 김재인(연안 역)

흥행성적: 148,151 (서울관객)

특수분장사: 박선지

줄거리

<여고괴담 2>는 한 여학생(민아)이 발견한 노트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노트의 주인은 동성애 커플로 소문난 효신과 시은의 교환일기였고 이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지만 효신과 시은은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무시하면서 친구 이상의 감정을 주고 받으며 학교생활을 한다.

한편 민아는 이들 둘의 관계를 교환일기를 통해 우연히 바라보게 되면서 효신과 시은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빠져들게 된다. 하지만 신체검사를 하던 날 효신이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하게 되고 학교는 발각 뒤집힌다. 효신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효신이 남긴 노트에 의해 헤매이던 민아에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된다. 이어서 효신과 부적절한 사제관계로 소문이 돌던 국어선생이 자살하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효신의 영혼에 의해 학교 전체는 정전이 되고 소음이 일면서 불길한 기운에 휩싸이게 된다.

<여고괴담 2>는 <여고괴담 1>이 개봉된 지 일 년 만에 만들어졌다. 영화사에서는 처음부터 <여고괴담>을 ‘브랜드’화 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전편으로 인해 기획력을 인정받은데다가 현실감 있는 이야기로 흥행성적 또한 기대치에 비해 높았던 만큼 시리즈로 만들어 각각의 영화가 이어지지 않고 독립적인 이야기들로 새로운 영화를 만들려는 취지에서 여고괴담시리즈는 시작되었다.¹³⁾

그러면서 <여고괴담>이라는 시리즈에는 어떤 원칙이 생겼다. 한국영화시장은 외국에 비해 협소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포영화에 투자되는 자금은 타 장르영화에 비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여기에서 <여고괴담>은 시장에 맞은 규모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다. 더불어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귀신의 효과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고려한다면 이미 누구나 알고 눈에 익은 스타들 보다는 신인이 제격이라는 점에서 두 번째 원칙을 세운다. 신인들 또한 첫 데뷔작으로서 자신의 능력 이상의 열정을 쏟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인감독을 등용시킨다. 한 두편의 성공으로 자기의 색이 분명해진 감독들 보다는 신인배우처럼 처음에의 열정과 신선함을 장점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렇듯 제작진의 의도들에 의해 <여고괴담 2>편이 개봉되었다.

<여고괴담 2>의 감독 민규동, 김태용 감독은 전편의 흥행에 이어 속편을

13) <여고괴담 3-여우계단> DVD. 씨네 2000 이춘연사장 인터뷰중에서

말게 되어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지니고 있었다.¹⁴⁾

그래서 동일한 공간적 배경(여고)과 이야기 형식(괴담)만을 빌리고 전편과는 차별화된 얘기를 목표로 시작했다.

1편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교육제도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 속에서 가해자들이 죽어가는 것에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면 2편에서는 학교 속에서 성장의 고통을 겪는 아이들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가 10대 여자애들에게 주는 여성적인 규범과 청소년 다움의 규범들에서 방황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¹⁵⁾

이렇게 1편과 2편은 현실 속에서의 문제들을 꼬집고 있지만 다른점은 1편은 좀 더 포괄적으로 사회 속에서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반면 2편은 개인이지만 1편을 보고 온 공포영화의 기대치가 높았던 관객들에게는 외면을 당했다. 평론가들 역시 공포장르의 미덕을 갖추지 못했다는 질책이 있는가 하면 공포영화의 관습을 새롭게 변형했다는 평도 있다. 하지만 감독들은 이러한 질책들에 오히려 여성영화나 퀴어영화로 이해해 주기를 말한다.¹⁶⁾

그들에게는 공포영화라는 장르적 형식을 따르는 것보다 10대 소녀들의 성장을 말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것이 공포라고 생각한 것이다.¹⁷⁾

누구나가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고괴담 2>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반응 역시 당연한 것 일 것이다. 하지만 독립된 속편으로서의 영화적 가치와 공포장르의 새로운 접근 등은 충분히 인정해야 될 부분이다.

14) 정한석, 씨네 21 2003.8.8

15) 김재일, '〈여고괴담두번째이야기〉억눌린 10대들의 금지된 사랑'. 평전. 한국경제신문발행.43p 1999.12.24

16) 김혜리 '〈여고괴담두번째이야기〉공동감독 김태용, 민규동' 씨네21. 2000.01.04

17) 정한석, '여고괴담 동창회에서 생긴일(2)' 씨네21. 2003.8.8

2. <여고괴담 2> 의 특수분장

1편의 흥행에 뒤를 이은 <여고괴담 2>에서 말하는 공포는 영화개요에서 보듯이 다른 개념의 것이었다. 10대 소녀들의 성장과정에 중점을 두면서 공포 영화의 공식을 깨뜨린 영화였기 때문에 특수분장과 같은 시각적인 효과들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 신체손상장면 보다는 자살하는 장면 등에 피를 연출한 것이 주가 되고 있다. 1편에 이어 2편을 다시 맡은 박선지씨 역시 1편이 보여주는 공포라면 2편은 느끼는 공포였던 것 같으며 이러한 2편의 분위기를 위해 감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면서 효과적인 화면을 위해서 얼마나 표현하고 얼마나 절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항상 염두 하면서 일을 했다고 한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효신이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장면이다. 박선지씨는 이러한 장면의 표현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떨어진 높이와 자세를 감안 해 카메라의 각도에 맞게 연출하는 것이라고 한다. 피의 방향이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스크린에서 실제로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1.12. <여고괴담 2>의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효신

(그림 11)처럼 바닥에 뿌리는 피의 경우에는 기존의 배우 얼굴에 쓰는 물

엿과 색소, 커피 등으로 만든 피 대신 안료¹⁸⁾를 사용한 피를 제조해서 사용했다.

(그림 13)는 죽은 효신의 얼굴이 민아에게 자꾸 보이게 되는 환상장면을 공포적으로 잘 설정한 장면이다. 이 장면은 미술팀이 특수 제작한 캐비닛에 배우가 분장을 하고 직접 들어가서 촬영을 한 것이다.



그림 13. 캐비닛 속의 효신



그림 14. 국어선생의 자살장면



그림 15.16. 극중 민아



(그림 15)과 (그림 16)는 극중 효신의 영혼에 의해 쫓기는 민아의 긴박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러한 장면의 연출을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장의 강도를 주어 촬영한 것이다. 땀을 표현하기 위해 글리세린과 물,

18) 물이나 대부분 유기용제에 녹지 않는 분말상의 착색제

흙을 사용하여 분장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고괴담 2>의 특수분장은 피의 연출과 배우의 얼굴을 극적인 상황에 맞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었다. <여고괴담 1>,<여고괴담 2> 두 편을 연이어 맡았던 박선지씨는 이 당시의 촬영환경과 지금을 비교할 때 예전에는 분장팀에서 특수분장까지 같이 맡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특수분장팀이 전문적으로 분업화 되면서 기술적으로나 일적으로 더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증가되고 있지만 특수분장 안에서 역시 대규모의 회사에서 철저하게 분업화 되어 움직이는 외국에 비해 한 팀이 모든 일을 해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은 특수분장의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IV. <여고괴담 3 -여우계단>

1. 영화개요

감독: 윤재연

국내 개봉일: 2003.08.01

주인공: 송지효(진성 역), 박한별(소희 역), 조안(혜주 역), 박지연(윤지 역)

흥행성적: 538,429(서울관객)

특수분장사: 이창만

줄거리

<여고괴담 3>는 어느 예술학교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신비한 여우계단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이다. 28개의 계단으로 된 여우계단을 오를 때 간절히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같은 무용반인 소희와 진성은 단짝이지만 소희에게 실력에서 항상 2등으로 밀리는 진성은 발레 콩쿨 대표로 소희가 뽑히자 크게 좌절하고 여우계단으로 향해 소원을 빈다. 진성은 여우계단에서 소희 대신 발레 콩쿨에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발레 슈즈에 몰래 유리조각을 넣어 방해 하지만 소희가 학교 대표가 된다. 하지만 여우계단의 저주로 진성과 소희가 다투다가 소희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발레 콩쿨의 기회는 다시 진성에게로 가게 되고 대신 콩쿨에 출전한 진성은 1등으로 입상한다. 어느날 소희에 대한 미안함에 자책하고 있던 진성에게 소희가 나타나지만 다음날 학교에서 소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진다.

한편 항상 뚱뚱한 모습으로 따돌림을 당했던 혜주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자신을 대해주는 소희에게 동경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언제나 놀림감이 되는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여우계단에 올라 날씬하게 해 달라고 소원을 빈다. 뚱뚱했던 혜주는 점점 날씬해지지만 소희의 영혼이 혜주에게 빙의되면서 학교는 점점 여우계단의 저주로 죽음의 분위기가 감돌게 된다.

<여고괴담 2>이후 <여고괴담 3-여우계단>은 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탄생되었다. 제작진은 당시 영화적으로 평론가들에게는 후한 점수를 받았지만 전편에 미치지 못하는 흥행성적을 만들었던 <여고괴담 2>를 만회라도 하듯이 <여고괴담 3-여우계단>에서는 시나리오에서부터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¹⁹⁾

1편에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교육제도의 비판을 얘기하고 2편에서는 10대 소녀들의 성장과정의 추억담 정도라면 <여고괴담 3-여우계단>에서는 예고에서 벌어지는 여고생들의 질투와 자괴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²⁰⁾

실제로 예고를 나온 감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고괴담 3-여우계단>은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같은 목표로 향해 노력하는 예고 학생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것 때문에 빚어지는 비극과 공포, 곧 사회에서 뭔가를 이뤘을 때 벌어지는 부작용을 담고 있다.²¹⁾

시리즈 영화에서 한편을 맡은 감독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윤재현 감독도 1, 2편에 이은 3편에 부담감이 있었지만 우선 편하게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

19) <여고괴담 3-여우계단> DVD. 이춘영사장 인터뷰중

20) 김혜리. '질투와 자괴감에 대한 이야기 <여고괴담 세 번째 이야기:여우계단>'. 씨네21. 2003.07.29

21) 이성욱. 감독인터뷰. 씨네 21. 2003.7.8

했고 관객이 영화를 읽지 않게 하는 것이 의도였다.

또한 감독은 영화를 제작하면서 귀신의 모양새나등장이 기존 영화와 꼭 달라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우리가 처녀귀신은 보면 언제나 섬뜩한 기분이 들듯이 기본적으로 괴담영화에 충실하면서도 ‘여우계단’이 상징하는 내용, 사랑받고 싶고 버림받기 싫은 소녀의 마음이 표현되기를 바랐다.²²⁾

하지만 <여고괴담 3-여우계단>은 오싹한 찰나의 이미지를 건지는데 성공할 뿐 서스펜스나 참신하게 시각화된 쇼크를 연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²³⁾는 평가를 받지만 공포영화로서의 장르적 특징에 대해서는 다들 호의적인 반응이다.²⁴⁾ 관객들 역시 2편에 비해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소재였고 공포적 요소들이 많았다는 평이다.²⁵⁾

하지만 분명 <여고괴담 3-여우계단>은 전편들과는 독립적인 분위기로 관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기술적인 부분들에서도 공포영화의 특성을 잘 살린 영화였다.

2. <여고괴담3-여우계단>의 특수분장

전편 <여고괴담 2>와는 다르지만 형식적 면에서 <여고괴담 1>과 비슷한 <여고괴담 3-여우계단>은 공포라는 장르적 특징을 잘 살린 영화였고 덕분에 다양한 특수분장 효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했다. 특수분장을 맡은 이창만씨는 <여고괴담 3-여우계단>를 통해서 한국 특수분장의 무한한 발전과 노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22) 김혜리. 질투와 자괴감에 대한 이야기 <여고괴담 세번째이야기:여우계단>. 씨네21. 2003.07.29

23) 김혜리. 질투와 자괴감에 대한 이야기 <여고괴담 세번째이야기:여우계단>. 씨네21. 2003.07.29

24) 이성욱. 여고괴담 동창회에서 생긴 일 [1]. 2003.08.08

25) 네이버 . <여고괴담 3-여우계단> 네티즌 리뷰. s_kimmunh

여러 가지의 특수분장이 사용되었고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시도들이 있었던 작품이다.

(그림 17, 18)은 극중 혜주의 특수분장 된 사진인데 제작기간만 두 달 정도였고 현장에서 분장하는 시간이 6시간 정도 걸린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특수분장은 프로스테틱 메이크업(Prosthetic make up)이다.

Prosthetic make up 의 사전적 의미는 보철학, 의치(술) 라는 뜻으로 특수분장에서 Prosthetic make up을 간단히 말하면 얼굴이나 몸에 어떤 보형물을 덧붙여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혜주처럼 뚱뚱하게 변화시키거나 화장, 멍이 들거나 맞아서 퉁퉁 부은 눈, 노인 분장 등이 바로 프로스테틱스(Prosthetics) 기법으로 표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7.18. <여고괴담 3>에서 혜주로 분장된 실제 영화장면

혜주의 Prosthetic make up 은 기존의 특수분장에서 사용하던 실리콘이 아닌 새로운 실리콘 재질을 가지고 특수분장 한 작품 중에서 성공적인 연출을 했던 작품이기도 했다. 1995년에 특수분장사 김성문씨가 <301 302>에서 핫폼(Foam latex)²⁶⁾을 이용해 뚱뚱하게 보이도록 하는 특수분장을 해 주목을 받았던 선례가 있었지만, 이창만씨는 가볍긴 하나 실제 피부에 비해 탁해

26) 라텍스를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재료로 오븐에 구워 사용

보이는 핫폼의 단점을 뛰어넘고 싶었기에 오랫동안 실험했던 미국에서 개발된 성형 수술용 의료 재료인 실리콘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²⁷⁾

이렇게 얼굴부분은 실리콘을 재료로 하여 입체적으로 분장한 것이고 다른 신체부분에는 기존의 핫폼(foam latex)을 사용했다.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의 입장에서 가벼운 성질의 핫폼은 적격인 재료였다.

핫폼이란 라텍스를 주성분으로 여러 가지 처리를 거쳐 만들어진 재료로 4가지 성분(foam base, foaming agent, curing agent, gelling agent)으로 구성되며 오븐에 구워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서 핫폼(Hot foam)이라는 용어가 유래되기도 한 것이다.

미국영화에서 핫폼을 사용하게 된 시기는 1939년 ‘오즈의 마법사’로 알려져 있으며²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정도로 짐작되며 분장사였던 허석도씨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후 ‘구미호’, ‘은행나무침대’, ‘전설의 고향’으로 이어져 지금까지 폭넓게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림 19. 20)



그림 19. 핫폼이 사용된 구미호의 모습



그림 20. <은행나무침대> 핫폼을 사용한 분장

27) [특수 분장, 완전 범 죄를 꿈꾼다] 한국 특수 분장, 여기까지'. FILM 2.0 2004.4.8 나지언 기자

28) Mark Cotta Vaz, Patricia Rose Duignan. Industrial Light & Magic. 1996. A Del Rey Book

헛폼에서 실리콘(silicone)이라는 재료를 영화에 쓰게 된 것은 1992년 ‘죽어야 사는 여자’를 통해서이다. 이 영화가 실리콘을 사용한 분장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이후 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 작품은 ‘조용한 가족’, ‘텔미썸딩’, ‘페이스’, ‘복수는 나의 것’, ‘살인의 추억’, ‘여우계단’, ‘아랑’, ‘아파트’ 등으로 2000년 이후의 작품들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다. 그 종류가 다양한 만큼 더미, appliance 제작뿐만 아니라 몰드작업 등에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림 21~26)



그림 21. <텔미썸딩>냉동 유기시체 모형



그림 22. <살인의 추억>전신시체 모형



그림 23. <알포인트>모형 작업과정



그림 24. <알포인트>얼굴모형



그림 25. <아파트>얼굴 모형



그림 26. <아랑>의 아기 전신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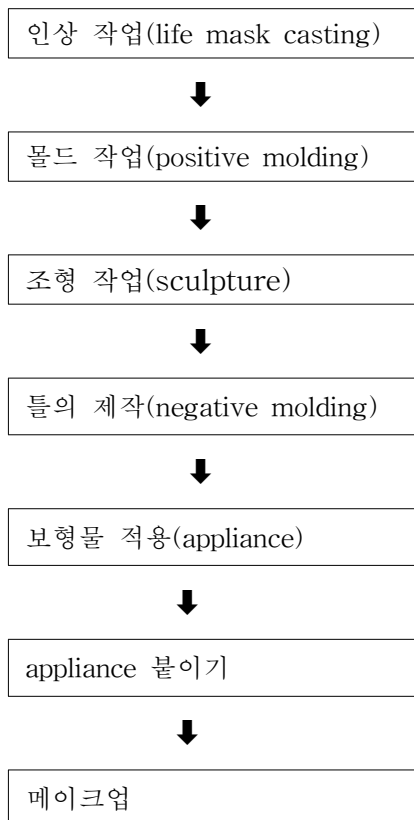
특수분장 재료의 변화에 따른 영화 구분

재료 시대별영화	라텍스	핫폼	실리콘
1989년	우담바라		
1992년	명자야끼꼬쏘냐		
1994년		구미호	
1996년		은행나무침대 진설의 고향	
1998년		퇴마록 쉬리	조용한 가족
1999년		닥터K	텔미썸딩 해피엔드
2000년			대학로에서 매춘...
2001년			무사
2002년			복수는 나의 것
2003년			살인의 추억 여우계단 청풍명월
2004년			페이스 여고괴담 4 범죄의 재구성 알포인트
2005년			가발
2006년			아랑 아파트
2007년			미

이러한 핫폼과 실리콘이라는 재료로 완성된 해주의 제작과정을 살펴보면 우선은 배우의 신체를 캐스팅하는 것이다. 인상(life mask casting)작업으로 여기서 사용했던 인상제는 실리콘이다. 간편한 작업에서는 인상제를 알지네이트²⁹⁾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작업을 요하는 프로스테틱 메

이크업에서는 인상제용 실리콘을 사용하게 된다.

실리콘으로 배우의 신체를 복사한 다음 몰드(positive molding)가 완성되면 조형작업(sculpture)을 하게 된다. 원하는 모양을 인체해부학에 근거하여 잡은 다음 주름이나 땀구멍 등의 미세한 묘사를 하고 난 뒤 틀의 제작(negative molding)을 하게 된다. 그런 다음 보형물(appliance)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appliance³⁰⁾를 배우의 피부에 접착하게 되는 것이다.³¹⁾



29) 치과에서 치아를 본뜨는 재료

30) 분장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조각들을 말함.

31) <http://www.lcm6904.com/>

당시 새롭게 쓴 이 실리콘은 접착하는 처음에는 6시간정도 소요되었고 재질에 숙련이 된 다음부터는 4시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얼굴에 붙인 다음에도 굳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시간은 배우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만 실제 피부와 이질감 없이 붙을 수 있다. 이 실리콘은 기존의 딱딱하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었던 실리콘에 비해 실제 피부처럼 질감이 우수하고 표정을 지어도 근육과 같이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 훨씬 자연스러운 분장이 가능한 제품이다. 이렇게 붙인 실리콘 appliance가 굳으면 표면의 광을 없애주는 작업을 하고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하게 된다. (그림 27.28.29.30)

이렇게 완성된 몸에 부가적으로 헤어의 색을 밝게 만들고 피부톤 역시 밝게 하여 뚱뚱한 해주의 모습에 완성도를 높였다. (그림 31. 32. 33)



그림 27. 배우의 분장 전 모습



그림 28. appliance 붙이는 과정



그림 29. appliance 붙이는 과정



그림 30. 분장 후의 모습



그림 31. 헤주의 캐릭터로 변한 배우 조안의 모습

그림 32. 헤주의 몸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F.R.P물드와 핫폼



그림 33. 분장된 손의 모습

(그림 34, 35)은 조소실의 시체를 더미(Dummy)로 만든 것이다. 해주에게 쓰여졌던 실리콘으로 보형물을 적용하고 안의 공간은 우레탄 폼으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위에 조소용 흙을 덧발라 소조작품을 가장한 시체를 표현했고 여기에 진짜 구더기를 붙여 극적인 사실감을 주었다.

우레탄폼 (polyurethane foam)이란 이소시아산염화합물과 글리콜의 반응으로 얻어지는 폴리우레탄을 구성 재료로 하고, 구성성분인 이소시아산염과 다리결합제로 쓰는 물과의 반응으로 생기는 이산화탄소와 프레온과 같은 휘발성 용제(溶劑)를 발포제(發泡劑)로 섞어서 만드는 발포 제품을 일컬으며³²⁾ 특수분장에서는 비용적인 면이나 무게적으로 가벼운 특징을 가진 우레탄 폼을 이용해 더미나 부분 시체모형의 속을 채우는 용도로 쓰여지는 재료이다.



그림 34.35. 조소실의 시체모형

32) 네이버



그림 36. 조소실의 시체모형



그림 37. 시체모형 촬영준비과정

(그림 38)은 죽은 소희의 영혼이 무용실에 나타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는 더미(Dummy)와 애니매트로닉스(Animatronics)가 같이 사용되었다. 배우 박한별의 전신을 인상제로 캐스팅 한 다음 실리콘으로 보형물을 적용한 것이다. 여기에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움직임을 준 장면이다.(그림 40,41,42)



그림 38. 영화 속 실제장면



그림 39. 무용실에 나타난 소희의 영혼



그림 40.41 소희의 모형 제작과정



그림 42. 기계장치 된 소희모형

애니매트로닉스(animatronics)란 애니메이션(animation)과 일렉트로닉스(electronics)의 합성어로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CF 등에 사용되는 특수효과 기법 중 하나로 장면의 사실감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기계적인 뼈대와 전자회로를 이용해 움직임을 가지는 모형 캐릭터를 만든 다음 이를 무선으로 원격 조종해 연기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특수분장과 애니매트로닉스에 컴퓨터그래픽(CG)을 연계해 활용한다. 사람의 특수분장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장면, 동물과 식물이 사람처럼 말을 하고 움직이는 장면, 위험한 장면을 연출할 때 주로 사용된다.

1960년 초반까지 특별한 명칭이 없었던 이 기술은 1960년대 초 월트 디즈니에 의해 세워진 디즈니랜드의 Magic Kingdom's Attraction에 설치되었던 3차원적인 기계 모형에 애니매트로닉스라는 이름을 붙이며 명칭을 갖게 되었다.

이 기술이 사용되었던 영화는 Edwin S. Porter의 The Eagle's Nest(1907)로 거대한 독수리의 날개에 피아노 와이어를 사용하여 움직임을 주었다.³³⁾ 영화

‘E.T’, ‘슈라기 공원’에 등장한 총 7종의 공룡, ‘드래곤하트’의 용, ‘맨인 블랙’의 외계생명체, ‘반지의 제왕’의 골룸, 2005년에 개봉한 피터잭슨의 ‘킹콩’, ‘나디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에 등장한 사자 아슬란 등이 애니매트로닉스가 적용된 좋은 사례다.

애니매트로닉스가 활용된 우리나라 영화의 경우 ‘쉬리’, ‘무사’, ‘지구를 지켜라’, ‘마지막 늑대’, ‘태극기 휘날리며’, ‘친군’, ‘친절한 금자씨’, ‘각설탕’ 등으로 2000년대부터 많이 등장하게 되었고 실제로 일부 특수분장사들은 애니매트로닉스를 같이 겸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림 43, 44)



그림 43. <각설탕>에서 기계장치 된 말의 모습



그림 44. <친절한 금자씨> 최민식의 개모형

현재 애니매트로닉스의 활용 방식은 유압방식, 모터제압방식이 있다. 유압 방식은 박물관 모형 등에 많이 사용되며 로봇개발산업에 기초로 활용되고 있다. 모터제압방식은 무선 컨트롤러의 작동으로 원하는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부피를 장점으로 영화 등에 적극 활용하며 로봇산업에

33)Mark Cotta Vaz, Patricia Rose Duignan. Industrial Light & Magic. 1996. A Del Rey Book

연구 활용되고 있다.

(그림 45)는 극중 어두우면서도 개인주의적이었던 윤지의 캐릭터를 이해하게 해주었던 얼굴의 흉터 분장이다. 이렇듯 하나의 캐릭터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특수분장이 사용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이러한 흉터분장을 위해 캘로이드³⁴⁾나 젤라틴³⁵⁾을 사용했으나 여기에 사용된 재료는 실리콘으로 해주얼굴의 appliance 재질과 같은 것이다.



그림 45. 분장된 윤지의 실제 영화 속 장면

그림 46.47. 윤지의 얼굴 흉터 분장과정

(그림 48)은 여우계단을 오르는 진성에게 소희의 영혼이 발목을 잡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계단이 사용되었고 계단에 구멍을 뚫어 배우가 분장을 한 다음 얼굴을 직접 대고 촬영하였다. 계단의 질감과 색에 맞는 분장의 효과를 위해 묘사적으로 표현한 분장이다.

34) 분장용 재료로 중탕하여 액체로 만들어 사용

35) 제과용으로 화상 상처분장에 사용



그림 48. 제작된 여우계단

그림 49. 50. 여우계단에 나타나는 귀신분장과정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고괴담 3-여우계단>에서 특수분장은 전작들에 비해 재료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보였으며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분장기술들이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비슷한 시기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같은 재료의 변화가 보였으며 외국의 작품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질적으로 우수한 특수분장 작품들이 많았다. 이러한 변화들은 특수분장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약적인 발전이긴 하나 이것은 특수분장사들이 오랜 세월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V . <여고괴담 4- 목소리>

1. 영화개요

감독: 최익환

국내 개봉일: 2005.07.15

주인공: 김옥빈(영언 역), 서지혜(선민 역), 차예련(초아 역), 김서형(희연 역)

흥행성적: 126,134(서울관객)

특수분장사: 최정아

줄거리

<여고괴담 4>는 한 여고에 단짝친구인 영언과 선민을 둘러싼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와 공포를 다룬 영화이다. 뛰어난 노래실력으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음악 선생 희연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영언이 홀로 음악실에서 노래 연습을 하던 중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다.

하지만 그 영언이의 영혼이 학교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그녀의 목소리가 친구 선민과 신비한 능력을 지닌 초아라는 아이에게 들리게 된다. 선민은 이런 사실에 놀라지만 목소리만 남게 된 친구를 외면하지 못하고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캐기 위해 노력한다. 선민은 음악선생을 의심하지만 그녀 역시 첼로줄에 목 매달려 죽고 만다. 선민과 초아는 영언의 목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점점 가까워지지만 그럴수록 영

언의 목소리는 잊혀져간다.

그러던중 학교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이 찢긴 영언의 시신이 발견되고 영언을 죽인 건 효정이라는 아이로 영언처럼 음악선생을 대신해 노래를 부르던 학생이었는데 음악선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게 되고 결국 자살한 것이다. 하지만 그 후 그녀의 목소리를 영언이 대신하면서 효정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영언을 죽게 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선민은 영언이를 보내주려 하지만 잊혀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영언은 초아를 죽이게 되고 마지막으로 남은 선민에게 영언의 영혼이 남게 된다.

<여고괴담 4>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포의 소재를 사운드에 초점을 맞춘 영화이다. 사운드가 만들어내는 공포이기보다는 목소리만 남은 애가 경험 할 수 있는 사운드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³⁶⁾

전편들과 달리 <여고괴담 4-목소리>은 영화 초반에서부터 죽은 귀신이 주인공이 되어 영화를 이끌어가면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주인공이 귀신들에 의해 쫓기고 공포의 주체가 귀신이 되는 보통 공포영화의 고정관념이 된 스토리적 특징을 완전히 뒤집은 새로운 영화적 시도였다.

<여고괴담 4-목소리>에도 전편들에서처럼 따돌림이나 자살, 동성애 소재들은 나오지만 이 내용들을 교훈적인 내용으로 끌고 가지 않았고 귀신을 고독한 존재로서 주체화 시키면서 정서적 여운을 담았다는 평가³⁷⁾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2편과의 유사성³⁸⁾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2편에서처럼 긴박

36) <여고괴담4:목소리>최익환감독 인터뷰. 씨네 21. 2005.07.12

37) 김봉석. <썬컷>Go,Go!<여고괴담>시리즈 씨네 21 2005.7.29

38) 김종철. 씨네 21. 최익환 감독의 목소리,<여고괴담4:목소리>2005.10.7 - 여고괴담은 한국 유일의 시리즈 호러영화지만 영똥한 구석이 많다. 1편과 3편은 호러지만, 나머지 두편은 호러와 거리가 멀다. 또 2편과 4편은 매우 닮은꼴이여 이들 영화에서는 상업성 짙은 장르영화를 추구하

감이나 자극적인 장면들에 치중하기 보다는 감독이 원하는 귀신의 정체성이 더 부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렇듯 장르적으로나 시리즈 중에 한편이라는 외부 환경에의 간섭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던 최초의 속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³⁹⁾

일부 관객들은 감독의 의도처럼 혼자 남겨진다는 공포감과 잊혀져간다는 것의 공포감을 느끼게 해준 작품이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공포영화의 기본적인 공식을 생각했던 일부의 관객들에게서는 흔한 피 마저 많이 나오지 않고 귀신의 정서적 여운에만 신경을 쓰는 내용에 대해 불만 섞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반응들에 최익환 감독은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 관객을 무섭게 만들기 위해 어떤 기술적 테크닉들이 쓰였는지에 먼저 주목하는 것 같이라며 <여고괴담>이라는 시리즈 자체가 공포영화로서의 한계를 많이 안고 가는 것이지만 머리 풀어헤친 여고생 귀신이 다시 나온들 어색하기만 할 뿐이라는 생각에 그는 오히려 여고라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관계에 주목했고,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려 했다⁴⁰⁾고 말하고 있다.

최익환 감독은 공포의 인자를 소리에 두고 전혀 다른 공포영화를 만들기 원했지만 개념적으로 정말 무서울 것 같았던 소리들이 막상 만들어놓고 보면 별로 무섭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어려움으로 꼽기도 했다.⁴¹⁾ 한국 영화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소리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에 의해서 <여고괴담 4-목소리>는 시간의 흐름이 기술의 발전을 불러오듯이 전편들에 비해 차별화되고 세련된 영상미로 관객들

기보다는, 감독의 예술적 성취에 대한 개인적 욕심이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39) 두나. 한국 호러의 새로운 기로. 씨네21. 2005.7.12

40) <여고괴담4:목소리>최익환감독 인터뷰. 씨네21. 2005.7.12

41) 전정운 기자. 한겨레

과 소통하고 있다.

영화를 단지 흥행성적 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감독들은 누구나 자신의 영화적 코드가 관객들과 잘 소통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다고 상업적인 성공만을 위해 영화를 만든다면 그건 분명 영화계의 질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가 될 것이다.

2. <여고괴담 4-목소리>의 특수분장

본 논문의 연구자가 담당했던 <여고괴담 4>의 특수분장은 주로 신체의 손상 장면과 영화적 시각 효과를 위한 프로스텍틱 메이크업 작업을 활용한 작품이다.

감독이 그리고 있는 영화 전체적 분위기가 잊혀지는 망자의 두려움을 담은 서정적인 공포영화였기 때문에 시각적이면서도 기술적인 타 공포영화와는 다른 분위기를 요구했다. 끔직하고 피로 범벅이 된 비주얼보다는 영화적 내용에 자연스럽게 이어 나갈 수 있는 공포의 분장을 요구했다. 영화의 내용 안에서도 특수분장은 부분적으로 시각적인 화면구성에 묻어나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은 없다. 하지만 감독 역시 특수분장에 제일 공을 들였으면 했던 장면은 있었다. 초아가 과열된 형광등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에 얼굴을 다치고 쓰러지는 장면인데 이 장면만큼은 영화의 후반부이기도 해서 공포감의 극적효과를 원했었고, 특수분장을 맡았던 본인 또한 분장의 효과가 가장 강한 장면 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고심했다.⁴²⁾

어떤 영화든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신체 손상 장면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나오게 되는데 언제나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은

42) <http://www.cinetizen.com/> '캐릭터에 색깔을 입히는 최정아 분장팀장' 2005.07.15

효과와 화면의 완성도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거기에서 좋은 분장 효과들을 얻어낸다.

<여고괴담 4>의 부분적인 신체 손상 장면들의 이미지와 그 재료, 제작과정들을 살펴보면 (그림 55)와 같은 신체손상장면을 분장으로 효과를 내는 기존의 방법들은 왁스⁴³⁾로 손쉽게 상처의 모양을 만들어(그림 52) 라텍스로 고정하는 방법이나 직접 상처모양의 슬랩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이었다. 기존의 왁스로 만드는 방법은 한번에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번의 촬영을 통해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내는 영화적 장르의 특성과는 다소 무리가 있는 방법이며 슬랩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은 제작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같이 배우의 목 부분이 클로즈업되지 않고 그 분위기만을 표현 해주어야한다면 그 같은 작업은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왁스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슬랩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였다.

당시 미국에서 3rd Degree라는 새로운 재료가 한국에 수입이 되었는데 일반화 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실리콘의 한 종류로서 분장 제품으로 나온 3rd Degree는 A, B 제품을 혼합하여 사용해야 굳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피부색에 맞는 색상선택이 가능하다.

왁스처럼 피부에 펴서 모양을 잡고(그림 54) 채색 재료로 상처의 효과를 만들게 되는데(그림 55) 사용한 후에는 제거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보형물로서의 활용도 가능한 제품이다.

43) 칼이나 각종도구로 베인 상처분장이나 돌출된 코, 귀를 분장할 때 성형의 재료로 쓰임



그림 51. <여고괴담 4>영화 속 실제 장면



그림 52. 서형의 왁스컷 분장



그림 53. 영화 속 실제장면



그림 54. 3rd Degree로 분장하는 과정



그림 55. 채색된 모습

(그림 56.57)은 극중 수술로 인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음악선생의 인물 설정에 맞추어 분장한 장면이다.

감독이 억지스럽고 징그러운 흉터들 보다는 오래되어 피부와 함께 묻혀 버린 듯한 사실적인 느낌의 흉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 번의 테스트 끝에 콜로디온⁴⁴⁾이라는 재료를 써서 그 효과를 냈다. 우선 라이닝 칼라로 일률적이지

얇은 흉터의 색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다음 콜로디온의 양을 조절하면서 피부가 수축하는 느낌을 표현했다.



그림 56. 영화 속 실제 장면



그림 57. 목에 흉터 분장한 모습

(그림 58)은 초아가 기계실에서 과열된 전구가 터지면서 상처를 입는 장면이다. 배우의 안전을 위해 가벼우면서도 제일 유리파편과 흡사한 슈가글래스⁴⁵⁾를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3rd Degree를 사용하여 슈가글래스를 붙일 곳에 상처의 모양을 잡은 다음 굳기 전에 슈가글래스를 붙였다. 잔 유리파편들을 하나하나 붙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분장시간은 1시간 30분정도가 소요되었으며 피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배우의 눈에 아이블러드⁴⁶⁾를 넣어 스며드는 피의 효과를 냈다.(그림 58. 59)

44) 피부수축의 효과가 있는 재료로 칼자국이나 오래된 흉터분장에 사용

45) 설탕 등을 녹여 유리의 질감을 낸 재료

46) 액체 상태의 눈에 쓰이는 피로 충혈된 눈에 사용



그림 58. 영화속 실제 장면



그림 59. 슈가글래스를 이용한 분장과정

(그림 60)은 배식카트가 떨어지면서 죽는 영언의 장면이다. 이 장면을 위해서 배식카트의 일부를 목의 모양에 맞게 절단하여 배우의 목에 끼우는 방법을 사용했고 3rd degree로 배우의 목을 보호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살갓을 표현했다. (그림 61)



그림 60. 영화 속 실제 영화장면



그림 61. 분장과정

(그림 62)는 영언이 악보에 꽂혀 죽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종이가 위협적으로 꽂혀 보이게 하는 것과 종이에 피가 스며드는 듯한 효과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장면들은 CG팀과 특수효과팀이 함께 병행해야 되는 작업이고 여러번의 확실한 테스트를 통해야 한다.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미술팀에게 우선 직접 제작한 종이를 보여주고 주문을 했다. 악보가 꽂혀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두께가 필요하지만 자칫 종이가 두꺼워질 경우 화면상의 리얼리티는 떨어진다. 그리고 분장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제조된 피로는 악보에 번져나가는 느낌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피 대신 붉은 잉크류의 물감을 제조하고 잉크가 잘 번져 나갈 수 있는 화선지종류로 악보를 만들고 뒷면에는 종이를 덧대어 두께감을 주었으며 악보에 번지는 피는 닝겔줄에 주사기로 잉크를 주입해 촬영한 것이다.

피가 종이에 스며드는 효과는 CG팀에서 주로 하는 일이지만 시간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불가능했기 때문에 특수분장팀의 기지로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

악보를 배우의 목에 꽂혀 보이게 하는 장면을 위해서는 목의 appliance를 제작했다. 우선 배우의 목을 촬영당시의 자세로 잡게 한 다음(그림 63) 인상 작업(life casting)을 하게 된다. 인상제로 알지네이트를 이용해 목에 균일하게 바른 다음 석고봉대로 지지해 (그림 63) 굳은 다음 떼어낸다. 그리고 석고를 발라서 배우의 목을 복사한 몰드(positive molding)에 원하는 모양으로 조형작업을 한다. 그 후에 다시 틀을 제작(negative molding)하고 유토를 떼어내 그 빈 공간에 실리콘은 발라 appliance를 완성하게 된다.(그림 64) 여기서 보형물로 RTV 400T라는 실리콘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슬랩에 최대한 피부색에 가깝도록 에어브러쉬로 컬러링을 한 다음 실리콘 접착제인 텔레시스(telesis)를 이용해 피부에 접착해 완성하게 된다.



그림 62. 실제 영화 속 장면



그림 63. 인상작업과정



그림 64. 실리콘 보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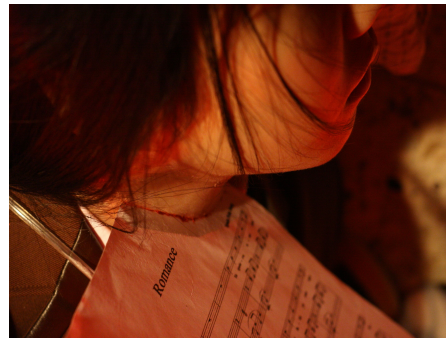


그림 65. 실제 촬영을 위해 appliance를 붙인 모습

(그림 66)은 첼로줄에 목이 감겨 죽는 음악선생의 영화 속 장면이다. 이 장면은 온몸에 첼로줄이 감긴 채 공중에 떠 있다가 떨어지는 연기까지 필요한 장면이었는데 클로즈업 컷이 있어서 배우의 목에 실제로 감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목에는 appliance를 제작했고 몸에는 첼로줄을 대신할 수 있는 끈을 대용으로 촬영했다. 제작과정은 먼저 배우의 목을 알지네이트와 석고붕대로 캐스팅(그림 67) 한 다음 석고를 발라 배우의 목의 모양을 본뜬 몰드가 나오면 첼로줄에 감긴듯한 목의 형상으로 조형작업(그림 69)을 하게 된다. 그 다음 틀을 제작(그림70)하고 조형작업을 한 부분의 유토를 떼어낸 다음 정리 후 보형물인 실리콘을 붓고 굳힌다. 거기에 배우의 피부색에 맞게 에어

브러쉬로 컬러링을 한다. (그림 71)

촬영시 첼로줄에 감긴 목에서 피가 나와야 하는 상황을 위해 닝겔줄을 슬랩과 연결해 심어 주사기와 연결해 놓고 실리콘 접착제 텔레시스(**telesis**)로 붙인 다음 슬랩과 피부사이의 경계를 정리를 해준다. (그림 72)



그림 66. 실제 영화 속 장면

인상 작업(life mask casting)



그림 67. 인상작업



몰드 작업(positive molding)



그림 68. 석고몰드



조형 작업(sculpture)



그림 69. 조형작업과정



틀의 제작(negative molding)



그림 70. 몰드작업과정



보형물 적용(appliance)



그림 71. 완성된 appliance



appliance 붙이기



그림 72. 마무리과정



그림 73. appliance 붙인 배우의 목에 첼로줄을 감는 모습

이외에도 (그림 74)에서처럼 특별한 분장이 보이지 않지만 디테일한 부분의 연출을 위한 분장도 있다. 여기서 배우는 눈물 렌즈라는 특수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것인데 잊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영혼의 슬픈 눈을 연출하기 위해 렌즈를 착용한 것이다. 이러한 렌즈 외에도 악마의 붉은 눈, 동물의 눈,

만화적인 캐릭터 등의 연출을 위한 렌즈의 사용은 분장에 있어서 캐릭터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재료가 되기도 한다.



그림 74. 눈물렌즈를 착용한 배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고괴담 4-목소리>의 특수분장은 다양한 신체손상장면과 프로스테틱 메이크업이 사용되었는데 <여고괴담 3-여우계단>의 혜주처럼 직접적으로 프로스테틱 메이크업이 행해진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배우의 연기와 안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렇게 특수분장은 배우의 완벽한 변신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배우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연기를 할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여고괴담 4-목소리>에서도 여전히 <여고괴담 3-여우계단>에서처럼 실리콘을 이용한 특수분장의 기법이 사용되었고 새로운 재료의 시도들이 눈에 띄는 흔적이었다.

VI . 결론

본 장에서는 본론의 분석내용들을 토대로 한국 공포영화 속에서 특수분장이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특수분장의 역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영화에 활용되면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당시 <여고괴담 1>의 흥행의 여파를 따라 개봉된 많은 공포 영화들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여고괴담> 이 후의 한국 공포영화들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적인 정서를 다루면서 공포만을 위한 공포영화가 아닌 한국적 공포영화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해외 공포영화의 공식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수백억이 투자된 볼거리 많은 해외 블록버스터 영화들에게 익숙해진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에 특수분장의 기술 역시 그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 차용된 것이 많았으며 새로운 재료의 도입이 특수분장의 효과와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수분장의 재료는 라텍스, 핫폼, 실리콘 순으로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새로운 재료의 도입은 더 사실적이고 기술적인 분장기술을 필요로 했다. 우리나라 특수분장은 그 역사가 짧은 기간 동안이긴 했지만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질 높은 효과를 연출하기 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 특수효과와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의 분야와 접목하여 상호보완하면서 완성된 화면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분장 기술에 대한 신뢰부족과 투자를 꺼리는 영화제작환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특수분장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외국에 경우 충분한 제작기간으로 완성된 특수분장을 할 수 있는 반면 항상 시간의 제약과 싸워야하는 현 영화의 실정은 정교하고 사실적일 수 있는 특수분장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문적인 특수분장사들의 부족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특수분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유치와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스크린쿼터제의 해결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개발을 통해 특수분장의 기회부여가 많아져야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특수분장사들의 노하우 축적으로 이어짐으로써 특수분장 발전의 도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강대영. 한국분장예술. 지인당. 1999
- 홍수경,이운배. 분장기술. 예림. .2007.
- 이상훈. 메이크업 예술기법. 들샘. 2007
- 김영심. 일본영화 일본문화. 보고서. 2006
-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학교엔 귀신이 산다: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2004

국외문헌

- Mark Cotta Vaz, Patricia Rose Duignan. Industrial Light & Magic. A Del Rey Book. 1996

논문

- 이은의, '공포인자의 특징에 따른 한국 공포영화의 분류 및 흥행과의 연관성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백문임. '한국 공포영화 연구-여귀(女鬼)의 서사기반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2
- 윤찬균. '한국영화에 나타난 보철분장 변화과정 및 활용사례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패션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 진현용. '한국 영화에 있어서 특수분장의 기법의 활용 사례에 관한 분석 연구', 한성대학교 패션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주영. '1998년 이후 한국 '귀신영화'에서의 여성재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순진. '한국괴기영화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영상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홍상현. '한국영화특수효과연구:<쉬리>이후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영상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5.

신문, 잡지

- 한겨레. 전정윤기자.
- 조선일보. 2002.11.09.
- 김의찬. 씨네21. 1998.6.30
- 씨네 21. 1998.06.30
- 허문영기자. 씨네21. 1998.06.30
- 정한석. 씨네 21. 2003.08.08
- 김혜리. '<여고괴담두번째이야기>공동감독 김태용,민규동'. 씨네21. 2000.01.04
- 박해명.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가 뽑은 시리즈 명장면'. 씨네21 NO.4
- 장병원, 주성철 기자. '특집1. 2005 한국 공포가 남긴 것- 한국공포영화, 잘 돼갑니까?'. FILM 2.0. 2005.08.23
- 이성욱. '여고괴담 동창회에서 생긴일 [1] '.씨네 21. 2003.08.08
- 정한석, '여고괴담 동창회에서 생긴일 [2] '. 씨네21. 2003.08.08
- 김혜리. '질투와 자괴감에 대한 이야기 <여고괴담 세 번째 이야기:여우계단>'. 씨네 21. 2003.07.29
- 이성욱. '감독인터뷰'. 씨네 21. 2003.07.08
- 나지언. '[특수 분장, 완전 범죄를 꿈꾼다] 한국 특수 분장, 여기까지'. FILM

2.0. 2004.4.8

- ‘<여고괴담4:목소리> 최익환감독 인터뷰’. 씨네 21. 2005.07.12
- 김봉석. ‘<숫컷>Go,Go!<여고괴담>시리즈’. 씨네 21. 2005.07.29
- 김종철. ‘최익환 감독의 목소리,<여고괴담4:목소리>’. 씨네 21. 2005.10.7
- 듀나. ‘한국 호러의 새로운 기로’. 씨네21. 2005.07.12
- 남동철.김혜리. ‘소녀가 소녀를 만나 첫사랑의 비극적 기록<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씨네21. 1999.12.21
- 고연옥. ‘영화 ‘여고괴담을 둘러싼 환호와 우려’’. 목요학술사 발행 p.106-110
통권165호 1998.07
- 김재일. ‘<여고괴담 두번째이야기>억눌린 10대들의 금지된 사랑’.평전, 한국
경제신문발행.43p 1999.12.24

인터뷰

- <여고괴담 1>,<여고괴담 2>편 특수분장사 박선지
- <여고괴담 3>편 특수분장사 이창만
- <여고괴담 4>편 특수분장사 최정아

인터넷 사이트

- <http://www.lcm6904.com>
- <http://www.siliconworld.com/>
- <http://www.cinetizen.com/> ‘캐릭터에 색깔을 입히는 최정아 분장팀장’
2005.07.15
- <http://blog.naver.com/jmi119970>
- <http://www.magefx.com/>

기타

- <여고괴담 1> 비디오. 시네마서비스. 1998
- <여고괴담 2> 비디오. 시네마서비스. 1999
- <여고괴담 3-여우계단> DVD. 시네마서비스. 2003
- <여고괴담 4-목소리> DVD. 시네마서비스. 2005
- 네이버. <여고괴담 3-여우계단>네티즌 리뷰. s_kimmunh

부 록

* 분장의 재료

1. 기본재료

- 파운데이션: 살색 컬러의 유성 스틱형과 용기형으로 스펀지나 손을 이용하여 펴서 사용.
- 팬케익: 파운데이션처럼 번지지 않아 파우더를 바를 필요 없는 수성타입의 재료.
- 라이닝 컬러: 분장용 유성컬러로 여러 가지 색이 있으며 잘 묻어나므로 파우더 사용을 겸해야 함.
- 클렌징 크림: 유성타입의 분장 제거제 왁스 작업시 매끈한 표면정리를 위해 쓰임. 화상분장시 글리세린과 혼합사용하기도 함.
- 스펀지: 라텍스를 화학처리하여 부드럽게 부풀린 것으로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사용.
- 퍼프: 면소재로 파우더를 바르는데 쓰임.
- 파우더: 가루타입으로 분장 중이나 분장 작업 완료 후 마무리 작업에 사용하며 얼굴의 색 보정을 위해 쓰이고 여러 종류가 있음.
- 블랙스펀지: 나일론제 스펀지로 상처, 수염자국, 얼굴의 질감표현에 이용.
- 레드스펀지: 멍 분장에 주로 쓰이는 부드러운 재질의 스펀지.
- 칼라세도우: 유성타입, 펜슬타입, 크림타입의 발색재료.
- 아쿠아컬러: 수성, 유성 타입이 있고 수성을 물을 섞어 쓰는 고품의 페인트로 강한 색상의 다양한 칼라가 제조되어있음.
- 듀오: 라텍스의 용도로 속눈썹을 붙일 때나 특수분장용으로 예민한 부분에 라텍스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재료.

2. 특수분장재료

- 스프릿 검(Sprit gum): 송진을 재료로 만들어진 분장용 접착제. 핫폼이나 볼드캡을 붙이는데 쓰임.
- 텔레스시스(Telesis): 실리콘 접착제로 접착력의 강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
- 글리세린: 투명 점액성의 액체이며 눈물자국이나 땀방울 표현에 사용.
- 석고붕대: 네가티브를 강하게 하기 위한 깁스 붕대.
- 아세톤: 상처재료와 밀봉제, 볼드캡을 녹이는 용도.
- 알콜: 붓을 세척하고 망수염 세척과 볼드캡 작업의 가장자리 처리시 사용.
- 글라잔: 용액형태의 플라스틱으로 섬세한 볼드캡을 만들 수 있는 제품.
- 콜로디온(Collodion): 투명한 액체의 제품으로 상처분장에 주로 쓰임. 바른면 피부가 수축, 굳절되는 점을 이용.
- R.M.G(Rubber Mask Grease)
: 볼드캡, 라텍스, 핫폼, 콜드폼 작업시 사용하는 유성의 불투명한 커버페인트로 여러 가지 색상이 있음.
- 더마왁스(Derma Wax)
: 유연성이 있는 고체형태의 재료로 흉터, 얼굴변형에 쓰임. 딱딱한 타입은 얼굴의 뼈가 있는 부위에 부드러운 타입은 눈썹을 지울 때 사용.
- 플라스토(Plasto)
: 반고체 상태의 물질로 칼자국상처, 가루수염 접착시에 주로 사용.
- 스킨젤(Skin Gel): 젤리형태로 화상분장이나 상처분장에 쓰임.
- 오부라이트(Oblate)
: 녹말이 주성분으로 주로 화상분장에 사용, 여러겹을 구겨서 물을 분무하여 피부에 밀착한 다음 파우더를 바르고 베이스를 바름.
- 튜플라스트(Tuplast)
: 튜브안에 들어있는 액체 플라스틱으로 상처, 물집을 표현하는데 사용

- 실러
 - : 상처분장 후 코팅작용 및 눈썹지울 때 피부질감 표현에 사용하는 젤타입의 액상으로 살색과 투명색이 있음.
- 매직블러드(Magic blood)
 - : 투명과 반투명의 2가지로 이루어진 콤비형 재료이며 1형을 바른 뒤 2형을 칼등에 묻혀 위에 그으면 그은 모양대로 피색이 나타남. 눈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발색이 약하므로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함.
- 아이블러드(Eye blood)
 - : 액체상태의 눈에 쓰이는 피를 말하며 충혈된 눈, 광기어린 눈을 표현할 때 사용.
- 티어스틱
 - : 반투명 스틱형의 제품으로 눈밑에 발라서 눈물을 내는 재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튜스에나멜(Tooth Enamel)
 - : 액체상태의 유색 물질로 치아의 색을 입히는데 사용. 치아가 빠지거나 니코틴이 낀 상태 등의 표현에 쓰임.
- 볼드헤드: 볼드캡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마네킨.
- 스파츨라(Spatulas)
 - : 치과용을 나온 스테인레스 재질의 도구로 조형작업이나 왁스 등을 털고 얼굴에 바를 때 사용.
- 전자저울
 - : 향품이나 실리콘 등의 제조시에 정확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사용.
- 유토: 조형작업에 쓰이는 유성의 흙.
- 인조피: 물엿, 색소, 커피 등으로 제조함.
- 픽스스프레이
 - : 스프레이 타입의 고착제로 분사 시 얇은 보호막이 형성되며 특수분장이

나 바디페인팅의 고착 시 사용.

- 식용색소(Dye color): 가루로 된 식용 발색제로 인조피를 제작할 때 쓰임.

- 안료

: 도란, 라이닝 칼라 제조시 색상 발색제로 쓰임. 화공약품상에서 구입.

- 알지네이트

: 치과에서 치아를 본뜨는 재료로 분장에서는 인상제 많이 쓰임.

- 폴리즈

: 석고상이나 석고를 떼내는데 사용하는 재료로 알지네이트와 같은 성분.

- 라텍스(latex)

: 고무나무의 수액에 암모니아나 가성칼륨을 혼합하여 만든 재료. 흰색이며 마르면 투명해지고 탄성이 있음. 상처분장, 노인분장, 가면, 소품제작에 쓰임.

처음 분장에 라텍스가 사용된 것은 1910년경. 우리나라에 라텍스가 영화에 쓰이게 된 것은 1970년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 정도로 짐작. 1989년 '우담바라', 1992년 '명자아끼꼬 쏘냐' 등에서 라텍스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핫폼(Foam latex)

: 핫폼은 라텍스를 주성분으로 여러 가지 처리를 하여 만들어진 재료로 4가지 성분(foam base, foaming agent, curing agent, gelling agent)으로 구성되며 오븐에 구워 사용.

- F.R.P: 유리 섬유 보강 플라스틱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의 약자. 내구성이 강해 몰드용을 쓰임.

· 실리콘

: 실리콘(silicone)이란 유기기가 결합되어 있는 규소가 실록산결합(Si-O-Si)에 의해 연결되어 생긴 폴리머를 가리킴. 천연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완전히 인공적으로 합성된 것. 실리콘은 그 성상에 따라 오일, 고무 및 레진의 3가지 기본형으로 분류. 각각 실리콘의 함유 100%의 폴리머 뿐만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라서 타 재료를 배합한 복합물로서 제품화되어 있으며 그 제품의 종류는 수천가지. 석고 형틀제작과 인공유방, 인공심장 등 모형제작에 주로 쓰이며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 전자, 건설, 우주항공, 해양 바위산업 등 각 분야에 없어서는 안 될 고분자 재료.

경화하는 방식은 유리창이나 알루미늄샷시에 있는 실리콘실란트처럼 그냥 발라주면 상온에서 서서히 굳어져가는 방식 RTV(Room Temperature Vulcanization) - 상온 경화형과 약 150도 이상의 열을 가해주어야만 1-2분 이내에 경화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HTV(High Temperature Vulcanization)- 열경화형으로 나뉨.

액상 실리콘 고무(RTV)특징은 유기적 특성인 고무탄성과 섭씨 -70~200℃의 넓은 온도 범위에서 유지되고, 전기적 성질 및 내후성 등이 우수한 무기 재료적 성질.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pecial Make-up of Korean Modern Horror Movie

- Centering around the Ghost Story Series of Girls' High School -

Choi, Jeong A

Major in Make-up & stylist

Graduate School of Art & Desig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lays meaning in analyzing how special make-up has developed and it is applied in Korean horror movie. This researcher tries to examine the features by putting together with modern horror movie in the horror movie of bulky quantity and centering around <ghost story of girls' high school> which was opened in the latter half of 1990s for the first time and which produced total 4 parts of series until 2004 out of movies that special make-up was used.

As for <Ghost Story of Girls' High School>, the meaning is great as the work which brought revival to the genre of horror movie of our country that investment and development were dull in comparison with other genre movie in those days and as the first series movie. So, it is

regarded as very proper work for studying horror movie and studying the development of special make-up more concretely.

In addition, it is the work that the researcher of this thesis participated in the part of <ghost story of girls' high school 4-voice> directly.

In this thesis, this researcher analyzed which special make-up was used in then movie background and each series by scenes and analyzed which development courses were there centering around used materials and techniques. Through this course, in other movies which were opened in the period to be similar to the series of ghost stroy of girls' high school, same development aspect could be seen, and it could be seen that the development of diverse special make-up materials is one element to heighten the quality of special make-up.

However, it is true that special make-up in the horror movie of our country has made rapid progress within short period in comparison with foreign countries which have developed slowly for long period.

But, that dependence on foreign country material is high and poor manufacture environment due to low manufacture expense which became better relatively in comparison with former times etc. are being revealed as points at issues.

In addition, it is true that relevant data are insufficient incredibly as much as the short history of special make-up. And, it could be seen that the situation of our country which gets to participate in all the

courses from the first to completion becomes the obstacle for the development of movie.

In the movie of our country which rushed in the period that nationwide spectators exceed 10 million, efforts of specialists for the development of special make-up will have to continue. And, for this, it is point of time that technical book, development of special make-up technique, development of material, and foundation of professional education institution etc. with investment of capital are necessary.

Lastly, I am thankful for professor, Yoon, Ye Ryoung who guided thesis in busy hour and want to convey the message of thanks to professors, Park, Sun Ji and Lee, Chang Mann who gave an interview and spare no effort for the special make-up of ghost story of girls' high school.